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으로 떠나는 봄맞이 3색 트레킹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고흥만의 독보적인 자연경관으로 탐방객 유혹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고흥 대표 트레킹 코스 3선’을 추천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에 추천된 코스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부터 활활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수변길, 웅의 전설이 깃든 해안 절벽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한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군락지를 자랑하는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이다. 이곳은 약 416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 뽕뽕하게 들어선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유명하다. 이곳은 완만한 경사의 테라피 로드와 명상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 남녀노

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어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천연 비타민 길’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고흥만 수변노출공원’이 제격이다. 고흥만 방조제와 인접한 이곳은 탁 트인 바다 뷰를 배경으로 잘 정비된 산책로가 특징이다. 캠핑장과 산책로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으며, 최근 감성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 질 무렵 바다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는 고흥 트레킹의 백미로 꼽히며, 야간 경관 조명이 더해져 밤에도 안전한 산책이 가능하다.



조금 더 역동적인 풍경을 원한다면 영남면 일대에 조성된 ‘미르마루길’을 추천한다. ‘미르(용)’와 ‘마루(하늘)’의 순우리말 조합인 이 길은 우주발사전망대부터 용바위까

지 이어지는 해안 트레킹 코스다.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흥의 역사와 전설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은 202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모는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장흥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흥군,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접수, 총 20억 원 규모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0억 원이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장흥군 누리집

(주민e참여)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주민들이 제안 단계부터 공모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동안 10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장흥군 제공**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이 되고 그 변화가 다시 지역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제2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개최 꽃비 내리는 사월, 고비산에서 만나요!

담양의 숨은 벚꽃 명소, 금성면 고비산에서 특별한 봄 축제가 열린다. 담양군은 오는 4월 4일 금성면의 축제 일원에서 ‘제2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를 개최한다.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식)가 주최하고 담양군과 지역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격년제로 열리며, 고비산의 산벚꽃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축제는 4월 4일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남진이, 한채완 등의 축하공연과 주민노래자랑, 다양한 체험 행사로 채워진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벚꽃 천연비누 만들기 △산벚꽃 꽃누르미 체험 △전통차 시음 △떡 매치기 △금성 딸기 판매 및 시식 △전통놀이 △떡거리리 장터 △지역 농특산물 전시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벚꽃길 걷기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산벚꽃축제 사진전과 의주제 산책로를 따라 ‘사랑의 자물쇠 걸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식 추진위원장은 “꽃비 내리는 봄날, 고비산 산벚꽃 축제장에서 소중한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설레는 봄의 정취를 만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제3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구례군수와 주민참여단 15명,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축사, 선언서 낭독 및 주민참여단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제3기 주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환경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참여단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민원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5일 군청 후생관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등록 및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주민등록 업무 처리 애로사항 ▲제도 개선 건의사항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진도군 소재 한마음기업, 사회복지시설에 백미 기탁

진도군에 소재한 한마음기업(대표 정영호)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백미 50포와 요구르트를 전달했다. 한마음기업은 진도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기업으로, 정부양곡을 신청한 가정에 매월 정부양곡을 배분하고 주거를 보수하는 등 주거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영호 대표는 이번 기탁뿐만 아니라 매년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진도건자재마트, 제일싱크대 등과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를 지원받는 등 한 가정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나눔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since 1978

보배섬 진도

제46회 The 46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6. 4. 17. 금 - 4. 20. 월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모도 MODO

주최 | Jindo

주관 |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

협찬 | D'LIVE

주최·주관 | Jindo

후원 | (주)메밀꽃유채향